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1

요즈음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경제학”이란 대학원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에서 가르치던 “재정학”에 기초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는 ppt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ppt를 쓰지 않고 직접 보드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해야 수강생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 강의는 나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지요.

얼마 전 수업 조교가 수강생 중 내 강의 ppt 원고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별 생각 없이 ppt 원고를 줘도 된다고 대답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 주지 말라는 것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학생이 ppt가 바뀔 때마다 열심히 촬영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이라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후 수업 조교를 불러 ppt 원고를 원하는 수강생이 중국 학생들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렇다면 ppt 원고를 줘도 좋다고 말해 줬습니다. 나도 유학 갔을 때 언어도 서툴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유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ppt 원고를 주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보드 위의 ppt를 촬영하는 일이 없어졌고, 그 중국학생들도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 교수 말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업 시간에 보드 위의 ppt를 촬영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교과서를 보지 않고 ppt로만 한 학기를 때우는 학생이 꽤 많다네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쓴 교과서를 교재로 쓰고 있는 어떤 교수가 ppt 원고를 학생에게 줘도 되느냐고 물어온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 교수의 수강생 중 ppt로만 한 학기를 때우려는 학생이 ppt 원고를 줄 수 없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저자인 내 생각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ppt가 자세하게 만들어졌다 해도 어떻게 그것만으로 한 학기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강의를 한 사람이 그 ppt를 위주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면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학점이 진정으로 수업 내용을 잘 소화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도 ppt를 숱하게 만들어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한 학기의 공부가 충분할 만큼 자세히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pt만으로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공부로 적당히 학점이나 따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가르쳐 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공부에 관한 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직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했다고 할 때 머리가 좋고 요령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머리나 요령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배움의 양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경제학은 특히 논리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ppt를 보고 여러 가지 개념을 나열식으로 익히면 뭘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서를 몇 번씩 반복해 읽으면서 어떤 문제와 관련된 논리적 구조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 이상의 좋은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려 하지 않고 단지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좋은 학점만 따려고 하는 것 같아 몹시 아쉽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싸구려 장사판이 되어 갈지라도 대학만은 진지하고 순수한 학구열로 불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와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교과서를 자세히 읽음으로써 스스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를 몇 번씩 읽고 아무리 궁리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에게 물어봐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을 얻으면 교과서를 정독해 스스로 답을 찾는 것보다 머릿속에 남는 것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은 할 수 없게 되구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 시간에 배운 지식들 중 사회에 나가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이나 은행에 가서 내쉬균형이나 완전균형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써먹으려고 이걸 배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에 기초해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데 능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ppt만으로 한 학기를 때우고 좋은 학점 받아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익혔다고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저 운이 좋아 그런 학점 받았을 뿐이지요. 또한 그렇게 적당히 요령으로 때우려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 버리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습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우직하다 싶은 정도로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법입니다. 학문에만 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에 왕도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ps.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둘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 싫어 교과서를 자세히 읽어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손쉽게 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 중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으면 나에게 아무 질문이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